

국회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한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핵심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중요 국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 외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이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54명이다. 임기는 4년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임기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한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임시회는 매년 짝수 월(8월, 10월, 12월 제외) 1일에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의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가 있다. 그 외 특정 안건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은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교섭 단체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 단체이다. 교섭 단체는 현대적인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

로,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회 외교 단체 구성, 회의에서의 발언자 수, 발언 시간 등을 정할 때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이 기준이 된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 조직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회의 지원에서부터 법률안,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지원, 의회 외교 활

동 지원, 민원 업무,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입법 및 의정 활동의 핵심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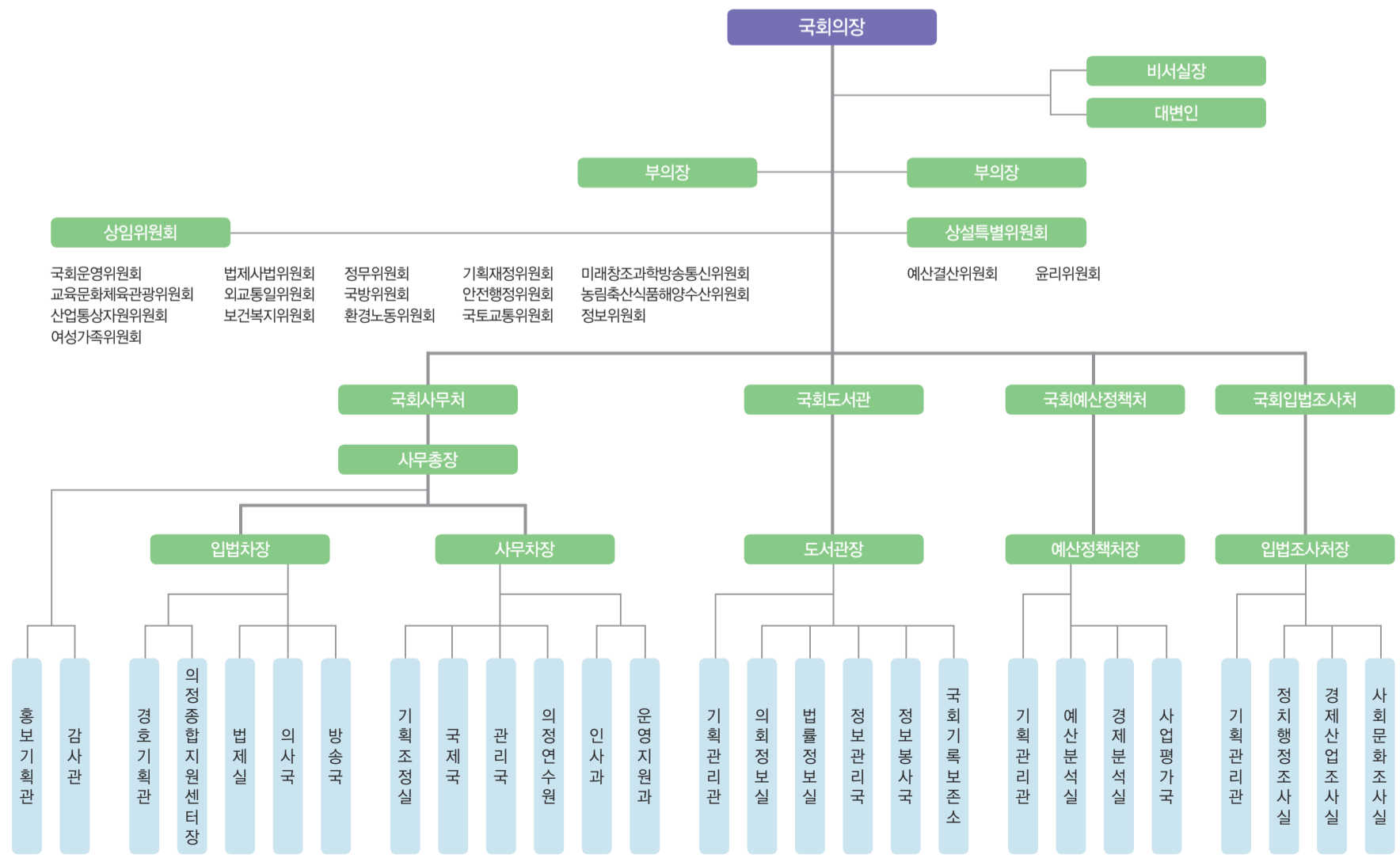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정 현안 및 입법 정보의 총괄적 수집자·관리자·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야간,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전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 재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 전문 의정 지원 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종합 정책 분석 기관이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급하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내의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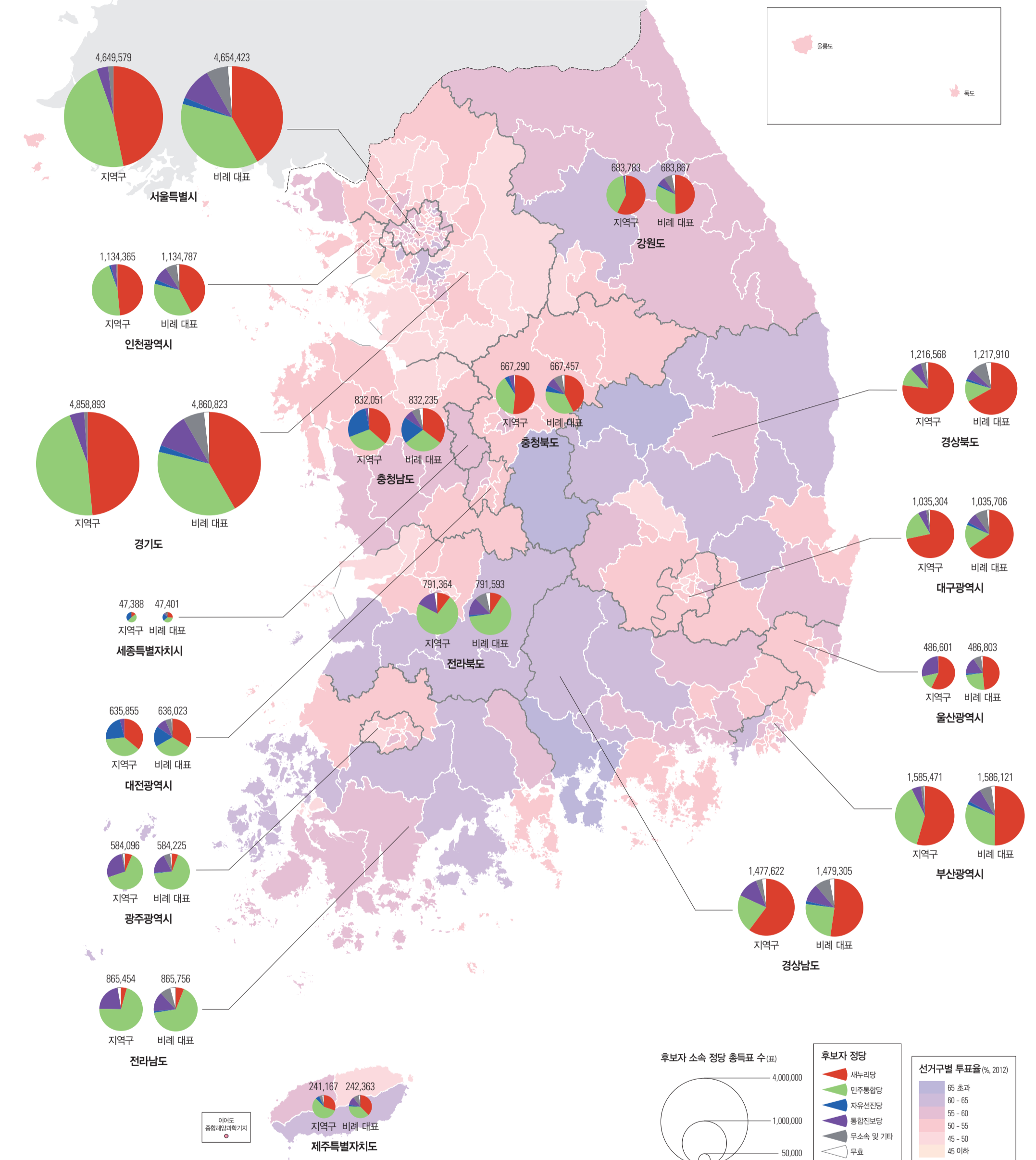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인당 7인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 의원 보좌 직원의 업무는 크게 입법 활동을 지원 하는 정책 분야와 유권자와 소통하는 정부 분야로 구분된다.

국회 조직도



입법부 구성원의 선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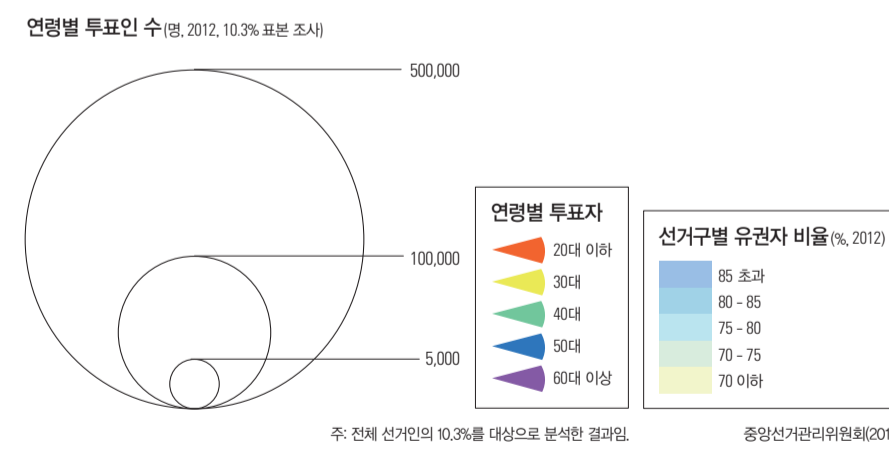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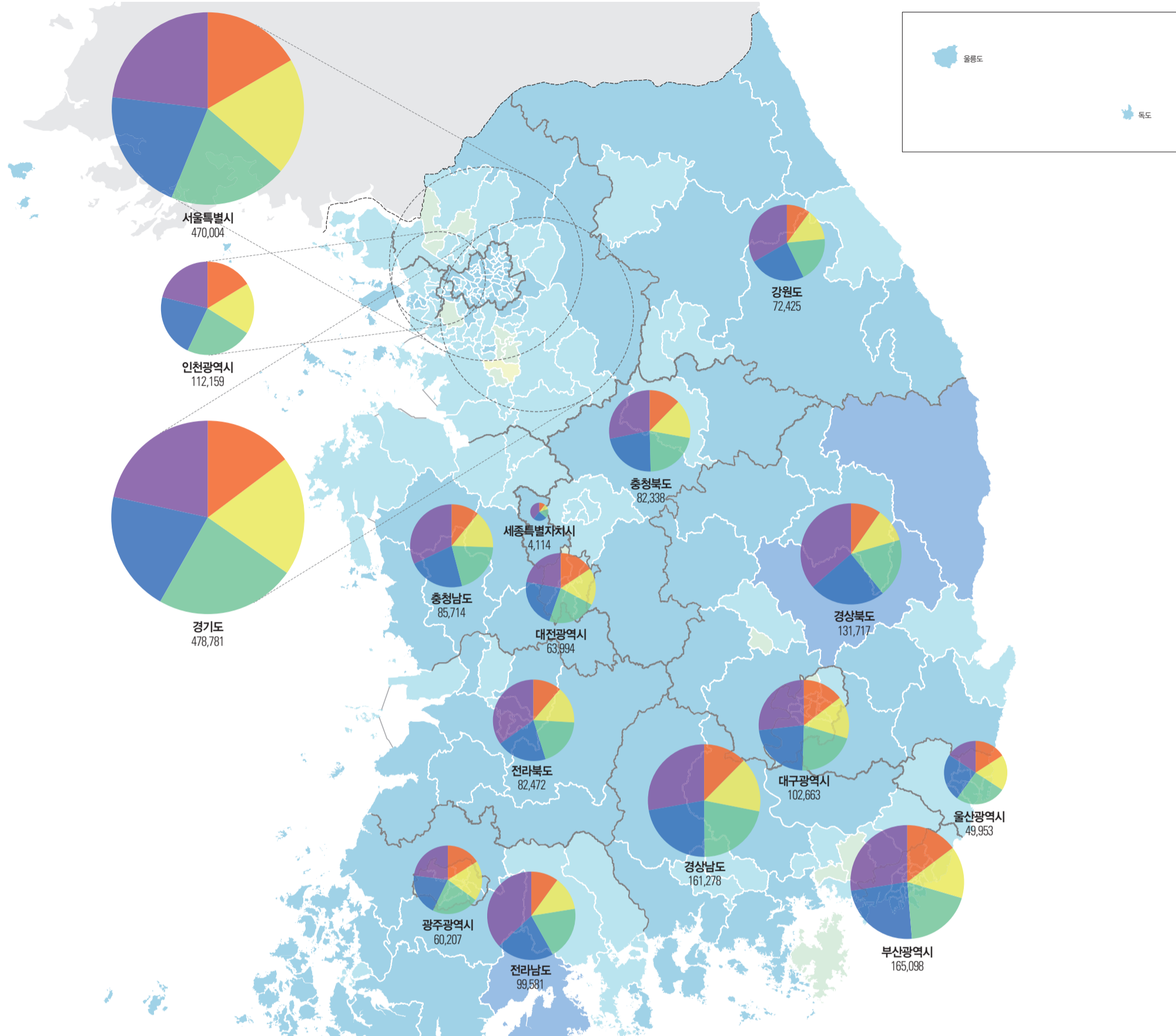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는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수단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지역 선거(의원 정수 246명)와 전국을 단위로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비례 대표 선거(의원 정수 54명)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약 54.2%이며,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 선거구(68.4%),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65.9%),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65.8%) 등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외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별 총표 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약 932만 표(43.3%), 민주통합당 약 815만 표(37.9%), 통합진보당 약 129만 표(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남·북도 일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민주통합당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우세했다.

한편, 각 정당별 비례 대표의 총표 수(기표는 제외)는 새누리당이 약 913만 표(22.7%), 민주통합당이 약 777만 표(19.3%), 통합진보당이 약 219만 표(5.5%)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 대표의 지역별 투표 결과는 지역구 대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일대, 경상남·북도 등에서 우세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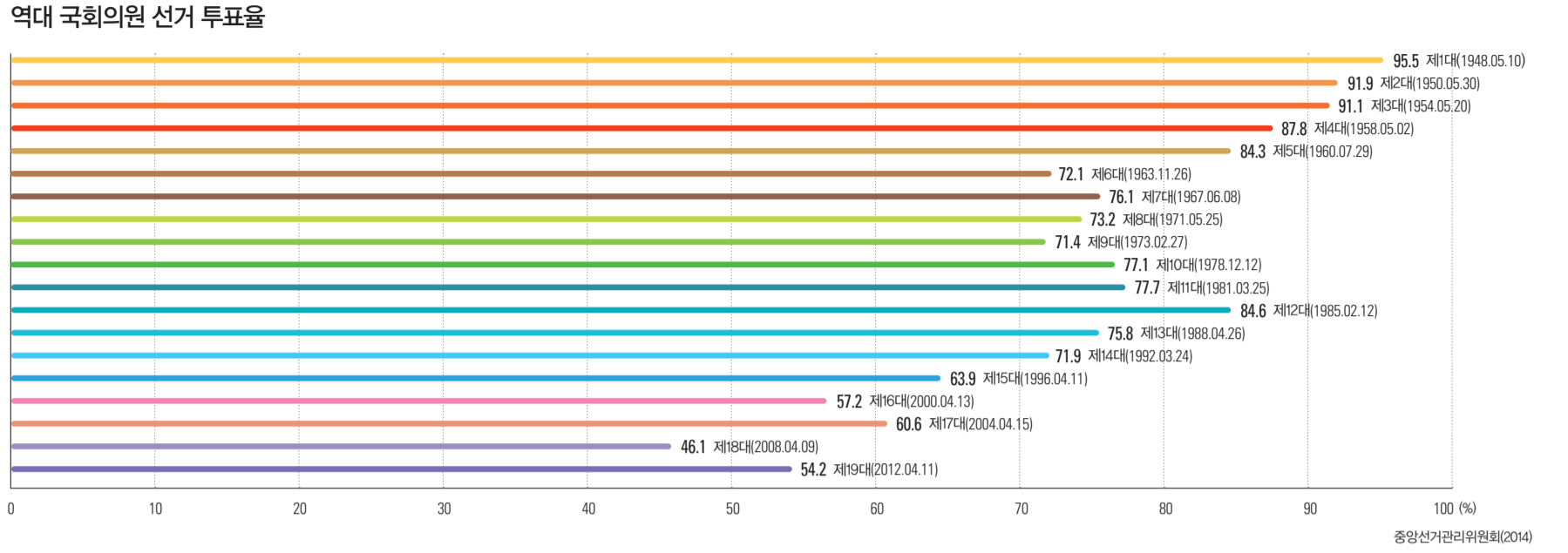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기 위해 총선거인 중 10.3%의 표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1,410개 투표구, 4,132,112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으로 선정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제일 높고, 20대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19~29세는 서울특별시, 30~39세는 경기도, 40~49세와 50~59세는 울산광역시, 60세 이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전국적으로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5.0%)에서 그 차가 제일 크고, 강원도(4.9%), 충청남도(4.8%)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부산광역시(0.6%), 대구광역시(0.9%), 경상북도(1.0%), 경상남도(1.0%) 등에서는 남녀 투표율의 차이가 적었다. 남성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59.4%), 전라남도(58.7%), 강원도(58.4%) 등이며, 여성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58.1%), 경상남도(56.8%), 경상북도(56.2%) 등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성별 투표율

지역	남성 (%)	여성 (%)
경기	53.9 / 51.1	60.0
강원	58.4 / 53.5	50.0
충북	57.4 / 53.3	50.0
충남	54.6 / 48.8	50.0
전남	58.7 / 52.8	50.0
전북	57.2 / 56.2	50.0
경북	57.8 / 56.8	50.0
경남	57.9 / 56.5	50.0
충청	57.7 / 53.9	50.0
대전	56.6 / 53.1	50.0
대구	53.0 / 52.1	50.0
광주	55.0 / 52.5	50.0
울산	57.7 / 53.9	50.0
부산	54.9 / 54.3	50.0
제주	57.9 / 52.9	50.0
서울	58.7 / 53.9	50.0
인천	52.3 / 50.2	50.0
대전	56.6 / 53.1	50.0
광주	55.0 / 52.5	50.0
울산	57.7 / 53.9	50.0
부산	54.9 / 54.3	50.0
제주	57.9 / 52.9	50.0
서울	58.7 / 53.9	50.0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변화 추이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8년에 실시한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95.5%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1985년에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낮은 46.1%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4.2%를 기록하여 직전 선거보다 8.1%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재외 국민 선거

재외 국민 선거는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내,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외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로 하며,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선거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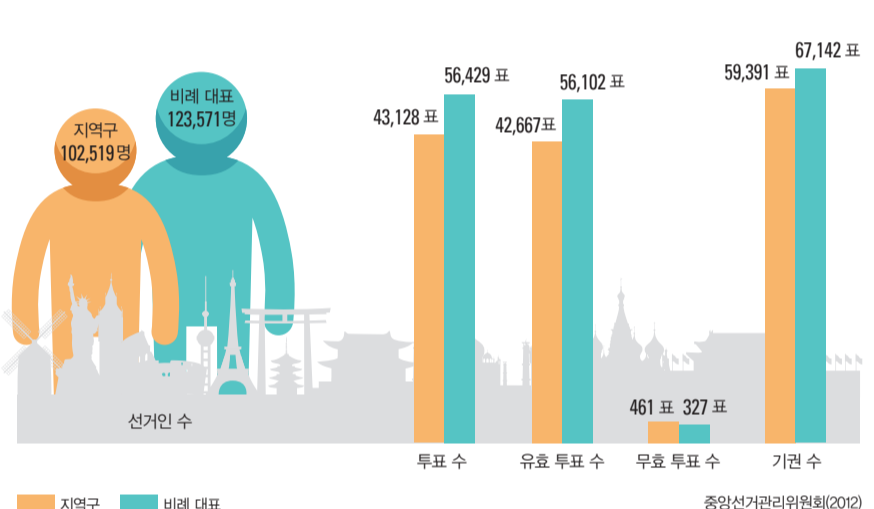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 국민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재외 국민의 권익 신장과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와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 국민 선거는 전 세계 158개의 공관 및 대체 시설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했다. 투표 기간은 6일로 하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선거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는 6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시행했다. 전체 투표율은 지역구 대표 선거 42.1%, 비례 대표 선거 45.7%였다. 각 대륙별로 투표율을 살펴보면, 유럽(57.04%), 아프리카(56.79%), 서남아시아(50.85%), 아메리카(49.07%), 아시아(41.07%)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40.0%, 민주당 35.2%, 통합진보당 14.5%, 자유선진당 1.6%, 기타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 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 선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외 거주 신고를 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비례 대표+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선거 개표 결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 투표 대륙별 현황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 선거

